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MFTZ

최해범*

목 차

- | | |
|------------------|-------------------------|
| I. 서론 | III.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 |
| II.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실태 | IV. 결론 |
-

Key Words: 자유무역지역, 마산, Free Trade Zone, Masan, MFTZ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need of Masan Free Trade Zone and the strategy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MFTZ was established as a center of general free trade and global distribution by means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1970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MFTZ, it can be proposed a) successful technology innovation, b) reforming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 the care of local government, d) strengthening of marketing activities, e) deeping of comparative advantage of investment, f) encouraging of strategic industries.

* 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choih@sarim.changwon.ac.kr, (055)279-7365

I. 서론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은 교역자유화추세다. 즉 WTO체제의 정착으로 무역, 투자 등 국제통상의 각 분야에 있어 관세·비관세장벽의 축소, 폐지 외·공정경쟁 및 국제교역에 대한 자유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은 생산·개발·조달·판매 등의 유통망을 세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생산요소와 물류의 네트워크가 편리한 최적의 입지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M&A와 경영자원의 글로벌소싱을 통해 국제분업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개방적 국제지역경제권이 경쟁적으로 결성되고 이 과정에서 역내무역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아울러 공산품의 사이버거래,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콘텐츠의 교역이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더구나 세계각국은 개방경제시대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자, 생산·무역·물류·금융·R&D·기술혁신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유무역지구 내지 경제특구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개방·개혁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2002년 세계 제2위의 외국인직접투자자유치국가로 성장 하므로써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 하여 동북아시아의 국제분업체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economic zones)이란 일국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허용해 주는 특정지역 혹은 지구를 말한다.¹⁾ 때문에 자유지역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경제전반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를 하지 않고도 국제분업체계를 확장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자하는 국가들이 하나의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정책방안으로 평가된다.²⁾ 현재 전세계의 자유무역지역은 설치국가의 경제상황, 설치지역의 입지조건, 설치목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능별로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구, 자유항, 통과지대, 자유구역 등에서부터 설치목적에 따라 수출자유지역, 외국인전용공단,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방구, 수출촉진지역 등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다.

한편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10년 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지정학적 요건을 오히려 국가경제의 진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본부의 고부가가치산업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설치를 추진중인 것이다.

1) 특히 경제자유지역은 특정국내에 설치돼 국내 일반기업에게 적용하는 각종 규제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 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등처럼 국가간에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과 다르다.

2) Dean Spinanger, "Objectives and Impact of Economic Activity Zones-Somes Evidence from Asia", *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20 Heft 1 1984, p. 65.

자유무역지역의 역사적 배경은 중세시대의 자유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³⁾ 그렇지만 자유무역지역의 현대적 모습이 갖춰진 것은 제국주의 팽창이 한창 진행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브랄티(1705년), 싱가포르(1819년), 홍콩(1841년) 등에 자유항이나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한 때로 볼 수 있다. 1934년 미국이 자유무역지역법을 제정·설치했고, 1960년대 전후에는 상업적 교역활동에 기반을 둔 자유지역들 대신에 제조업 중심의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자유지역들이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⁴⁾ 이후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1970년대를 맞이하자 대만의 카오슝, 인도의 칸들라, 한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 등이 계속 설치되면서 수출가공구는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유지역의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경제특구가 그 대표적 예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특구는 기존의 자유지역들과 약간 다르며, 형태 및 기능적 측면에서 보건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물류, 서비스업, 연구개발단지 등을 포괄하고 지역범위도 광역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마산 및 이리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동 지역들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 구실을 해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산업여건 역시 임금상승, 소득증가, 물가상승, 경제민주화 등의 제요인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대내적 여건변화에 따라 수출자유지역 역시 기존전력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경쟁국인 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데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중국 등 저개발국이 저임금을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00년 7월에는 우리도 자유무역지역설치법을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인근지역에 있는 마산수출자유지역도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즉 최근 경남경제의 청신호가 될만한 일련의 변화가 왔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에서 무역업, 전문물류업(창고, 운송, 하역, 포장, 전시, 판매), 금융, 동관, 의료, 정보처리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추가로 허용되는 종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됨에 따른 것이다.⁵⁾

3) 경제자유지역의 근대적 기원은 1547년 관세를 지불하지 않은 외국상품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역사상 최초의 자유항으로 지칭되는 이탈리아의 Genoa에서 출발하고 있다.

Chen, Xiangming, "The Evolution of Free Economic Zones and the Recent Development or Cross-National Growth Zon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19, No. 4, 1995, pp. 593-621.

4) Chen, *op cit*, p. 600.

5) 이의 근거는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에 관한 법률」(2000.1.12) 공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다.

나아가 기존단지의 부족한 산업시설의 확충 및 추가입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인접 봉암공업지역 일부(9만여평)를 정부가 매입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즉 2002년 11월 봉암공업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고시 하였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싱가포르의 우수한 비즈니스환경 등 경쟁상대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투자환경을 단 기간 내에 개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의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기존의 제도나 외국인투자지역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편이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의도에서 성장성의 측면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제Ⅱ장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서 세계자유무역지역의 유형의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협회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을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성과측정을 통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한다. 제Ⅴ장에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비전과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Ⅵ장은 맺는 말로서 앞에서의 논의를 요약한다.

Ⅱ.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실태

1.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자유무역지역(FTZ : Free Trade Zone)은 생산, 교역,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관세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법적, 지리적 특정지역을 의미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설치목적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제의 전체적인 개방화 및 제도변화(규제완화 등)없이 경제발전에 긴요한 외국자본과 기술 등을 원활히 도입하고 수출진흥 등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있다.⁶⁾ 한편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게 5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생산의 관점에서 지역내 부품·소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이다. 즉 생산설비의 공급을 증대하여 기술진흥 및 지역내 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도한다. 그리고 판매유통 및 무역의 시각에서 보면 국내유통산업의 활성화와 수출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외적인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에 대한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고용측면의 경우 현지인 고용확대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지역

6) National Association of Foreign Trade Zone'(2001) "A Positive Force i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산업의 고용증대에도 기여한다. 나아가 지방재정 확보에도 적잖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수출가공구가 발전도상국에 제공하는 주요한 장점으로 수출가공구를 통한 개방이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는 기여한다는 것이다.⁷⁾ 이에 따라 2002년 현재 전 세계에 걸쳐 가동중인 수출가공구는 약210여 개이며, 이중 아시아지역에 약 85여 개 이상(말레이시아에만 12개)이 존재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도 약 90여 개가 존재하고 있다.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도 2002년 말 현재 77개 입주기업체 중 49개사가 외자기업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집적도가 대단히 높은 상태다. 그리고 전국공단면적의 0.2%에 불과한 면적에도 우리나라 전기 무역수지흑자의 12.5%를 점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진흥과 무역수지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게다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의 개정으로 역외가공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역외가공을 통한 기술이전 등 생산분업체제가 확대되어 부품·소재산업의 활성화 내지 기술 향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관련산업을 육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⁹⁾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또는 자본재 및 설비 도입을 통해 이들 재화에 기술을 접목시키는 예가 많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나 기술연수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인력양성을 통해 인적자본에도 기술확산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¹⁰⁾ 특히 경남 전반을 보아도 특화산업인 자동차, 공작기계 등 기계산업의 핵심부품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업체의 출현은 수입대체효과, 나아가 지역경제의 체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는 선진경영기법의 도입과 R&D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이전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기술산업으로 고도화시키면서 지역의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기여를 한다 하겠다.¹¹⁾

7) Amirahmadi, Hooshang; Weiping, "Expert processing zones in Asia", *Asian Survey*, Sept. 1997, N. 9, pp. 828-840.

8) World Bank, *Export Processing Zones*, Washington D.C.

9) 그 결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만의 파오슝과 함께 세계의 수출가공구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고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신인도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0)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공장의 신축이나 증설과 관련한 생산설비의 조달규모가 집중하고 있다. 이는 마산이 IMF 이후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지방도시인데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장에 따라 생산설비산업을 육성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11) 한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투자본사로부터 제화된 기술과 지적자본은 역내·외 가공업체(226사)를 비롯한 고노련산업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첨단시설 및 장비대여 등을 통하여 이전되고 있다.

더구나 자유무역지역은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이 자유롭게 반·출입되면서 제품이 제조·가공된다. 이 경우 지역중소무역업자는 직접 원산지까지 가지 않아도 상품에 대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더구나 관세환급상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¹²⁾

그 뿐 아니라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출을 증진시킨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다 양하고 넓은 해외 수출시장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 이바지한다. 또한 수출입금융 및 원자재 구입 등에 있어 교역을 활성화시킨다. 수출로 인한 지역경제에의 직접효과로는 수출상품의 생산증대를 유발하고, 간접효과로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많은 산업의 생산에 연쇄적으로 파급된다는 점이다. 산업연관표 측정에 의하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2002년 말 현재 대략 80억 달러가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생산요소 구입이 수출에 의해 늘어난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유발효과는 수출액의 약 67%인 것으로 추산된다.¹³⁾

수입대체효과도 중요한 기능이다.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보호무역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국내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기업의 지역내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 중 국내판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2년 말 현재 수출자유지역의 경우만 고려할 때 한국전체 수출액의 6.5%를 점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신속한 통관절차와 선적이 이루어지므로 많은 노력과 경비절감을 가져다준다. 그밖에도 자유무역지역은 고용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성과

1) 고용창출효과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고용추이를 보면, '71년 1,248명에서 '73년 2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이후 '87년에는 36,400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후, 급격한 노동비용의 상승과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구조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90년대부터는 2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러한 감소추세는 2000년대에 와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감소 추세는 2000년대에 와서도 이어지고 있다.

12) 자유무역지역의 관세환급실태조사에 의하면 원재료의 수입에서 제조·수출·환급신청 등에서 일반 기업들의 환급일수에 비해 크게 짧다.

13)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내부자료, 2003. 3

<표 2-1> 연도별 입주기업체 고용인원 추이

(단위 : 명, %)

연도 구분	1980	1985	1990	1995	1999	2001
남자	6,349 (22.3)	6,641 (22.9)	5,799 (29.6)	5,123 (34.8)	4,744 (36.9)	4,618 (38.5)
여자	22,183 (77.7)	22,342 (77.1)	13,817 (70.4)	9,613 (65.2)	8,106 (63.1)	7,377 (61.5)
고용합계	28,532 (100.0)	28,983 (100.0)	19,616 (100.0)	14,736 (100.0)	12,850 (100.0)	11,995 (100.0)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내부자료.

<표 2-2>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련 고용인원(2001년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입주업체	역내지원업체	역외가공업체	합계
고용	11,995	500	4,567	17,062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내부자료.

2001년말 현재 역내 고용인원은 17,062(입주기업체 11,995명, 역내지원업체 500명, 역내·외 가공업체 4,067명)으로서 마산지역 제조업 전체고용인원(26,000명)의 65.6%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별도로 역내·외가공업체(226사)를 통해서도 4,567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¹⁴⁾

2) 수출진흥효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1년 86만불을 시작으로 '74년 1억불 수출, '79년 5억불 수출, '86년 10억불 수출을 달성하였고, '94년 이후 매년 20억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더구나 '99년에는 IMF경제환경하에서도 전년대비 15%가 신장한 28억불의 수출실적을 시현하였으며, 2000년에는 44억불의 수출을 달성하였고, 우리나라 100대 수출업체

14) 더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역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 인근의 인구를 마산시로 유입시킴으로써 1970년 19만명의 지방 소도시 규모에서 2002년 현재 인구 48만명의 산업도시로 성장시킨 동인이 되고 있다. 또한 창원지역 관련사업의 성장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1999년 이후 산업경기의 침체에 따라 창원공단의 경우 공장가동률이 70%로 떨어졌으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줄곧 90%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고, 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 517업체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업종별 수출을 보면 2000년에 와서도 전자·전기업종의 수출비중(90.5%)이 높고, 그 밖에 정밀기기, 금속, 기계업종을 제외한 여타업종의 수출비중은 미미한 상태다.

<표 2-3> 수출입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직 수출	내국수출	계		
1999	2,662 (96.1)	137 (4.9)	2,799 (100.0)	2,053	746
2000	4,196 (95.1)	216 (4.9)	44,12 (100.0)	3,397	1,015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내부자료.

<표 2-4> 업종별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천불, %)

연 도 업 종	1980	1985	1990	1995	1999	2001
전자·전기	394,776 (62.8)	521,306 (64.4)	1,023,350 (72.8)	2,021,583 (84.2)	2,564,757 (91.6)	3,992,996 (90.5)
정밀기기	79,757 (12.6)	115,591 (14.3)	148,801 (10.6)	194,701 (8.1)	102,605 (3.7)	154,425 (3.5)
금속	51,126 (8.6)	64,345 (7.9)	101,255 (7.2)	81,037 (3.4)	66,158 (2.4)	179,578 (3.8)
기계	7,842 (1.2)	21,782 (2.7)	14,381 (1.1)	13,699 (0.6)	19,728 (0.7)	26,472 (0.6)
비금속	2,573 (0.4)	2,972 (0.4)	6,014 (0.4)	10,115 (0.4)	7,603 (0.3)	17,648 (0.4)
섬유·봉제	11,696 (1.7)	22,425 (2.8)	21,661 (1.5)	19,864 (0.8)	8,812 (0.3)	1,323 (0.3)
신발	38,303 (6.1)	36,399 (4.5)	53,234 (3.8)	29,015 (1.2)	11,912 (0.4)	17,648 (0.4)
기타	42,027 (6.6)	24,499 (3.0)	36,678 (2.6)	30,915 (1.3)	17,446 (0.6)	22,060 (0.5)
합계	628,100 (100.0)	809,319 (100.0)	1,405,374 (100.0)	2,400,929 (100.0)	2,799,021 (100.0)	4,412,150 (100.0)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내부자료.

2001년 말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지역별 수출을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상당수가 과거에는 투자모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줄곧 일본, 미국으로 치중돼 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중국, 홍콩 등 동남아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시장이 점차 다변화해 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자유지역의 성격상 국내 로컬수출보다는 해외 직수출 비중이 높다.

<표 2-5> 지역별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 연 도		연 도					
		1980	1985	1990	1995	1999	2001
직 수 출	일 본	204 (32.5)	391 (48.3)	614 (43.7)	945 (39.4)	887 (31.7)	1,610 (36.5)
	미 국	170 (27.1)	206 (25.5)	265 (18.8)	564 (23.5)	651 (23.3)	975 (22.1)
	유 럽	56 (8.9)	39 (4.8)	104 (7.4)	139 (5.8)	148 (5.3)	211 (4.8)
	기 타	108 (17.2)	62 (7.7)	182 (13.0)	515 (21.4)	976 (34.8)	1,438 (32.6)
	소 계	538 (85.7)	698 (86.3)	1,165 (82.9)	2,163 (90.1)	2,662 (95.1)	4,214 (96.0)
내국수출		90 (14.3)	111 (13.7)	240 (17.1)	238 (9.9)	137 (4.9)	178 (4.0)
합 계		628 (100.0)	809 (100.0)	1,405 (100.0)	2,401 (100.0)	2,799 (100.0)	4,412 (100.0)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내부자료.

3) 외화가득효과

자유무역지역의 외화가득액은 매년 수출액의 30% 정도를 점하고 있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요소별로 보면 국산 원·부자재, 공공요금, 임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수출액의 29.6%의 외화가득(2001년도 : 13억6백만달러)을 지역경제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의 기틀이 되고 있다.

2001년도 외화가득을 내용별로 보면 원·부자재구입 5억4백만불, 공공요금 및 기타 4억3,200만불, 임금 3억 7,000만불 순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외화가득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출액	외화가득액		외화가득내역					
				국산 원·부자재		임금		공공요금, 기타	
			%		%		%		%
1991	1,463	735	50.2	327	44.5	186	25.3	222	30.2
1992	1,600	838	52.4	334	39.9	199	23.7	305	36.4
1993	1,755	911	51.9	416	45.6	205	22.5	290	31.9
1994	2,221	1,082	48.7	432	39.9	240	22.2	410	37.9
1995	2,401	1,081	45.0	442	40.9	264	24.4	375	34.7
1996	2,069	905	43.7	316	34.9	239	26.4	350	38.7
1997	2,201	909	41.3	317	34.9	224	24.6	368	40.5
1998	2,378	829	34.9	290	35.0	158	19.1	381	45.9
1999	2,799	853	30.5	340	39.9	248	29.1	265	31.0
2001	4,412	1,306	29.6	504	38.6	370	28.4	432	33.0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내부자료.

4) 기술이전효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투자본사로부터 체화된 기술과 지적자본은 역내·외 가공업체 (226사)를 비롯한 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첨단시설 및 장비대여 등을 통해 이전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체의 투명한 기업경영과 합리적인 노사관행 등의 경영기법도 역내·외 많은 기업에 빠르게 전파,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예컨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세계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키아, 소니, 산요 등의 투자 본사로부터 첨단기술과 시설재 등을 무상으로 도입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역외가공 및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이전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전자본을 고도화시켜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다.¹⁵⁾

5) 역외가공 증대효과

1975년부터 시작되어 입주기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역외가공제도는 무상의 시설재 제공 및 기술인력 파견 등으로 기술이전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며, 아울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왔다.

역외가공 현황을 보면 역외가공수탁업체(226)의 58%가 마산과 창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자유무역지역의 38%에 해당하는 4,567명으로 연평균 869억원이 넘는 가공임이 지급되고 있다.¹⁶⁾

15) 무역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지정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문헌 참조. 산업연구원,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지정 방안", 1999.8.

6) 지방재정 확대효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통해 고용과 생산 및 소득을 증대시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2001년도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756억원을 비롯하여 각종 공과금 175억원, 임금 2,452억원, 원부자재 및 물품구입비 4,125억원 등 총 7,508억원의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능과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시각을 이제 전환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와의 보완성 및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Ⅲ.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

1.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현실적 문제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기형적 단지구조와 협소한 공단부지 문제다. 예컨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당초 50만평규모의 1·2·3공구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차 석유파동의 여건변화로 단지의 중간부분(현 봉암공단 : 26만평)이 일반공업지역으로 전환됨으로써 하나의 보세구역이 일반공업지역(관세지역)을 사이에 두고 2개로 분리된 기형적 구조로 축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지역은 24만평의 좁은 면적에 77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더 이상의 확장여지가 없어 기존의 기업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퇴출하는 기존 입주업체의 시설(공장)을 인수하는 방법에 의존해 왔고,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생산과 무역·물류·유통기능 등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2000.7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종전 생산중심의 수출자유지역에서 무역·물류 등의 기능이 보강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되었으나 이에 따른 입지공간이 전혀 없어 추가적인 확대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게다가 물류

- 16)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무역수지개선, 수입대체,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의 효과 이외에도 기업활동과 관련한 국산설비 및 원부자재 공급산업, 역내·외 소재 및 부품 등의 가공산업, 무역과 관련한 서비스 및 금융·통신·물류산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후방 연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즉 2001년 이 지역에서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요소별 비용을 보면 국산원부자재 구입 7,515억원, 역외가공임 869억원, 제세공과금 4,206억원, 근로자임금 2,686억원 등으로 총 1조 5,276억원에 달하고 있고, 또한 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체가 가동 26년을 넘기고 있으며 수출과 고용면 등에서 사실상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내부자료)

및 주차공간의 부족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970년 조성당시 생산공간만 고려하고 물류 및 차량증가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책이 없었던 관계로 단지내 도로가 좁고(중앙도로만 12m폭이고 나머지 간선도로는 모두 7m폭)물류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역내차량 6,500여대중 5,000대의 차량이 좁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컨테이너 등 대형화물차량의 진출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더구나 조성당시 이 지역 전용부두로 건설된 현 3부두도 일반지역으로 전환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장기투자등을 유인하기 위한 지원제도도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신규투자 및 증자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주변국들의 경우에는 장기투자나 수출기업 등의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구비하여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가령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이 지역의 수출과 고용을 선도하고 있는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가동연수가 입주당시 조세감면기간(8년)의 3배가 넘는 25년을 경과하고 있으나 장기경영업체나 수출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경제특구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홍콩은 16%)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¹⁷⁾

기술개발 및 고용보조금관련규정도 대단히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조세감면위주의 지원제도로써 국세의 경우 전국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차별화된 정책수행이 곤란하면, 더구나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보조금지급제도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지자체의 보조금지급제도와외의 연관성이 미흡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제35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보조금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의 제정과 자금확보방안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의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 제정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환경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리하지 않다. 외국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점은 외국인투자의 유입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행을 정착시켜 투자입지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17) MFTZ “노사관계의 현황과 과제”,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2002.10, p. 923.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율의 임금인상 관행과 노사분규, 국제기준에 벗어난 근로조건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노사문제가 외국인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노동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기준과 관행에 뒤떨어진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자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적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국내관계법을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국내외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발전방안

얼마전 기획예산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당장 추진사업, 중장기적 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¹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여 2000.7. 관련법개정을 통해 종전 생산중심의 수출자유지역에서 무역·물류·유통 등의 기능이 보강된 자유무역지역으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기존단지의 부족한 산업시설의 확충 및 추가입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인접 봉암공업지역 일부(약9만평)를 매입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즉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이제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스템의 보완

자유무역지역내 생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단지내 기업유치를 위한 지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와 자유무역지역이 생산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겠다.¹⁹⁾

첫째, 지역부품산업의 활성화다. 즉 지역경제체가 유연적 생산시스템 하에서 세계적 투자입지를 찾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생산거점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지역부품산업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업종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화업종의 부품공장이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예 : 업종별 전문화단지).

18) 기획예산처 공보관실, 2000.8.

19) 최해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창원대 산업경제연구소 2000.12, pp. 205~207.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제조산업중심의 수출단지로서 30년이 경과하면서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를 이룬 특성과 경남의 산업이 기계산업중심의 특화산업지역으로서 성장한 특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일반단순가공의 생산체제에서 지역부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역부품산업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물류비용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저렴한 물류비용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의 기초 및 국제적 생산분업을 촉진시키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요한 입주요인이 된다. 물류비용의 절감은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을 통한 고속환송시스템이 요청되며, 정보기반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최근에 와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경상남도가 관세자유지역²⁰⁾으로서 지정·신청을 하고 있는 마산항과 마산무역지역은 물류상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행정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는 2차 관세자유지역(2006년부터 적용)으로 장기설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의 개발방식이 지역균형개발방식에만 너무 접근해 국토의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한 점과 세계경제변화추세에 너무 뒤진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일정 지역적 범위내의 특화성과 생산량과 수출량을 검토해야 하는 점이 빠져있고 오직 PERT입지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²¹⁾ 마산항 관세자유지역의 조기지정에 대한 근거는 경남의 수출이 울산이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앞의 수출입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기준 전국비중이 9%를 차지한다는 점과 마산항을 둘러싼 인근사인 마산, 창원, 진해, 김해가 이중 96%를 차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마산자유무역지역과의 연계성 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물론 경남수출산업의 물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크게 설정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는 법률에 있어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및 역할을 통합화 내지 단일화합이 반드시 요청된다. 두 개 자유지역의 속성이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시킨 법적 귀속근거의 출발이 재정경제부(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부에서 비롯되어 지원정책상의 차별화를 이루었다는 것이 외에는 사실상 다른 특성이 없다.

셋째, 지가지원이다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공장용지 가격은 선진국이나 주변 경쟁국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가는 1999~2002년간 1.8배 상승하여 소비자 물가상승(1.4배)을 앞지르고 있으며 동기간 중 공업용지가격은 2.9배 상승하여 주거용지(2.7배)가격 상승폭을 상회했다. 사무실 임대료도

20)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도입배경으로서 1999년 12월 28일 공포된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물류 유치 및 물류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 거점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세자유지역지정에 관한 연구”, 2000.4.(중간보고서)

경쟁국 도시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나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업의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조성한 공장용지의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외국기업에게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공장용지 매입비에 대한 융자방식에서 매칭펀드방식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도기술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지역산업이 단순가공위주의 생산구조에서 지역산업구조 고동화로 전환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물류·유통구조의 개선

첫째, 국제교역 및 물류기지로서의 기능 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써 자유무역지역내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²²⁾ 따라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및 국제무역 진흥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출위주 기능의 특정지역이라는 성격을 벗어나 중계무역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까지 역할제고가 요청된다. 이는 국제교역거점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하는 제조, 무역, 물류기지로서의 제반 환경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국제적 전시 및 유통기반의 확충을 위한 SOC투자가 요청된다. 이의 근거로는 현재 산업전시회와 박람회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지만, 경남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수도권인 서울, 경기도에 이어 3위인 점은 국제적 생산 및 판매거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전자상거래활성화는 국가 및 지역경제나 자유무역지역 공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특히 다국적 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되는 부문이다. 최근에 정보화 기반구축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산업의 세계적 판매망 구축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로 부여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 전자상거래과²³⁾를 설치(2000년 1월1일)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유무역지역에서의 영업활동)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기업체의 제조·물류·무역 기타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및 물류이동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23) 이 부서의 주된 업무는 16개 관련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전자거래기본법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기업과 산업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제도정비 및 보완

마산자유무역지역 투자기업체의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제도보완이 절실하다. 즉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우선 경쟁상대국에 비해 미흡한 장기경영기업 및 수출기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제도)을 시급히 마련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상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당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관한법률」제35조에 대한 시행령의 제정 등 적용기준의 시급한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대책마련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안(지자체조례 반영 등)을 강구함으로써 외국인투자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업중심의 기술혁신체계 확립

첫째, 기술개발의 확대를 겨냥한 산·학·연 개발체제 확립이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국내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경계선을 무시하고자한다. 이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의 기업이자, 우리의 수출기업으로 인식하고 논리를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든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생산의 파생적인 효과를 노리는 인프라 구축(기저귀 마련) 자체보다는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분원적인 생산(임신과 출산)에 지원이 이루어야 한다. 즉, 연구중심보다는 개발을 통한 산업화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연구개발의 산업화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각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시장에서의 잠재수요(상품 및 기술)인식과 기술적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충족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디자인 개념으로 결합하고, 가용정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해서 혁신이라는 기술적 상품, 즉 결과를 산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특허신청에 이어 시제품을 생산한다. 이어 상품의 시장적 수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철저한 계획하에 시장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및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운영, 전자상거래 발전전략 수립, 전자상거래 확산시책 추진,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및 표준제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등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개발된 제품의 시장진출에서 나타난 반응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련의 노력이 또 한번의 연구개발이라는 피드백 과정을 반드시 거쳐 또 다시 시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따라 끊임없이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달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세계시장에 접근하는 상품화를 고려한 개발의 중심은 수출기업에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세계시장에서의 접근을 통한 이익의 최종 귀착점이 수출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감안한 투자방법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산업화를 염두에 둘 때 산·학·연의 주종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기업이 주가 되고 대학 및 연구소는 從으로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필요기술수요에 대학과 연구소가 대응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상남도의 기술혁신을 위한 장·단기적 대응이 요구된다. 경상남도의 지역기술혁신정책은 시장적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장·단기적 정책으로서의 선후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연구중심이 아니라 개발과 상품화(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때 지역의 수출기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 경남기계산업진흥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대학과 국공립연구소에 너무 크게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의 중심은 명백히 기업이니 대학이나 국공립연구소가 아니다. 그리고 세계시장에 대한 상품진출에 현실적으로 열악한 기술적 한계를 느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집단은 수출산업의 주체인 기업밖에 없다. 이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파악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금부터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기초기술 및 개발기술의 수준을 높이는 내부적 노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의 결합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단순조립중심의 지역중소기업을 첨단중소기업이나 첨단벤처기업으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자유무역지역 역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요구된다. 즉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불가피한 국제적 대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노·사·정 합의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사회계약체결을 도출해 내는 노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관련법의 완화, 법정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으로 대체, 장기적 고용창출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 노동시장 관련 법제를 재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²⁴⁾

IV. 결론

1970년에 설치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전용공단으로서 선진기술 및 자본의 도입과 수출, 고용증대 등으로 우리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노사안정과 고부가가치 기술산업으로 구조조정을 이룩함으로써 2001년의 경우, 전국공단의 0.2%에 불과한 24만평의 좁은 면적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의 15%인 14억2천만\$의 무역흑자를 실현하여 국제무역 수지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단위면적당 수출액에 있어서는 전국산업단지 평균(812\$)보다 23배로 높은 18,700\$을 기록함으로써 높은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NOKIA, SONY, SANYO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다국적기업이 이 지역 수출과 고용을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00. 7. 종전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에서 무역·물류·정보처리업 등이 보강된 “자유무역지역”으로 기능을 개편한데 이어 2002. 11. 부족한 산업시설 확충과기능개편에 따른 추가입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접 봉암공업지역 일부(9만평)를 편입하는 확대·지정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이러한 경제적 성과나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존단지의 기형적 구조와 입지부족 등으로 극심한 물류 및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이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가동연수가 입주당시 조세감면기간(8년)의 3배가 넘는 25년을 경과하고 있으나 장기경영업체나 수출기업 등의 활동을

24) 아일랜드의 경우 국가경제의 파산으로 15만명으로 국민이 미국, 영국 등으로 이민을 떠나는 경제위기를 맞자 이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외국인투자유치 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1987년 노·사·정 합의로 임금인상의 자제와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법인세를 유럽최저인 10%로 인하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1,200여개의 다국적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이들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비중이 전체수출액의 90%에 달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1997년 맥켄지가 네덜란드를 유럽에서 가장 해고가 어려운 나라로 꼽았으나 1999년 노총(FNV)이 직접 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유연성과 보장법을 제창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세계적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유럽최대의 물류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임금조정과 관련하여 노·사·정 3자의 대표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WWC)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세계1위의 노동력과 안정된 노동환경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NWC는 노동생산성과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성과급제도를 고안하고 생산성 범위내로 고정급여의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기업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장려함으로써 세계초유량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여 아시아의 비즈니스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자료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형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당면과제” 2002.12. p. 91~92)

촉진하는 제도가 미흡하여 성장잠재력의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현재 생산공간의 부족과 단지운영의 비효율성, 물류기능의 한계 등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는 바, 현재의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확대지정하고, 역외가공구로써 지역산업단지를 준자유무역지역화하여 국제적인 제조 및 물류 교류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내 생산체계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단지내 기업유치를 위한 지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여 지역경제와 자유무역지역이 생산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술적 진보 및 기술개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 접근하는 상품화를 고려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중심은 수출기업에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시장에의 접근을 통한 이익의 최종 귀착점이 수출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화를 염두에 둘 때 기업이 주가 되고 대학 및 연구소는 従으로 설정되어 기업의 필요기술수요에 대학과 연구소가 대응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한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투자환경의 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와는 달리 한정된 여건 등으로 제약이 적지 않다. 즉 기존의 단지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핵심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확대사업을 통해 기존단지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물류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제조·무역·물류·유통·금융·정보·서비스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를 조성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법인세의 인하, 장기경영업체의 사업활동과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제도의 마련 등 경쟁상대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투자인센티브를 시급히 보완함과 동시에 노동관계 등의 각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글로벌기준에 맞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셋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기술수반의 고부가가치첨단산업의 무역기지로 특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다국적기업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넷째, 지리적으로나 산업발전 단계의 측면에서 일본과 중국의 중간위치에 있는 입지여건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있어 무역과 투자의 거점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되는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김시중, "동북아의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제11권 제2호, pp. 19-36.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내부자료, 2000.1.
- 산업연구원,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지정 방안", 1999. 8.
-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추진기획단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 2002. 4. 4.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기업협회 "마산수출자유지역 25년사" 1997. 3.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기업협회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발전방안" 2000. 10. 20.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기업협회 "2001년 마산자유무역지역 현황" 2002. 3.
-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2002. 10.
- 산업발전기획단 "2010산업비전 : 산업4강으로의 길" 2002. 9.
- 장근호 · 김진수,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정대철, "경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분석 및 전략연구(1) :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1999. 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세자유지역지정에 관한 연구"(중간보고서), 2000. 4.
- 小川雄平, "日·韓 自由貿易地域の設立可能性と釜山の役割", 「동북아 신경제질서하에서의 부산경제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국제학술세미나, 2000. 6, pp. 21-38.
- Amirahmadi, Hooshang; Weiping, "Expert processing zones in Asia", *Asian Survey*, Sep. 1997, No. 9, pp. 828-840.
- National Association of Foreign Trade Zone, "A Positive Force i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2001.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 Chen, Xiangming, "The Evolution of Free Economic Zones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Cross-National Growth Zon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rch*, Vol. 19, No. 4, 1995, pp. 593-621.
- Dean Spinanger, "Objectives and Impact of Economic Activity Zones-Somes Evidence from Asia", *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20 Heft 1, 1984, p. 65.
- World Bank, *Export Processing Zones*, Washington D.C.